



회장 이·취임식 개최

계육산업 당면과제 해결에 역량 집중키로



본회는 지난 4월 17일 서울 메리어트 호텔에서 회원사 대표와 협회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서성배 회장 취임식과 함께 한형석 전임 회장의 이임식을 가졌다.

이날 서성배 회장은 취임사에서 “향후 2년의 임기동안 공직생활 및 공기업 경영 참여 경험을 토대로 우리나라 계육산업이 당면한 과제해결과 회원사간 유대강화, 관련업계와의 협조체계 구축을 유도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육계 자조금, 닭고기 포장유통 의무화, 닭고기 등급판정제도 등 난제가 산적해 있는 가운데 중책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지만 위기는 새로운 기회라는 신념을 가지고 현안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2003년부터 4년간 회장직을 수행해 온 한형석 회장은 “계육협회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회원사 여러분이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준 덕분에 큰 과오없이 협회장으로서의 소임을 마칠 수 있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이제는 (주)마니커 회장으로서 육계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문지 기자 간담회 개최

향후 협회 운영 방안 제시



본회 서성배 회장은 지난 4월 23일 본회 회의실에

서 전문지 기자 간담회를 가졌다.

서성배 회장은 이날 간담회를 통해 “현재 계육업계의 현안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여기고 회원들간의 내부 결속을 다지는 데에도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육계 자조금 사업으로 서성배 회장은 자조금사업은 국내 육계산업이 한 차원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인 만큼 논의단계에서만 머물러서는 안될 것임을 강조하면서 일단 법적 테두리 안에서 출범하되 운영과정에서 탄력있게 적용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닭고기 포장유통 의무화와 등급판정 제도에 관해서는 회원사간 이해가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조율과 정지작업에 나서되 필요하다면 협회 차원의 중재안도 제시할 계획이며, 현 실정에 맞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할 경우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피력했다.

한편,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한·미 FTA 타결과 관련된 국내 계육산업에 많은 어려움을 미칠 것이 분명한 만큼 이달 중 별도의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을 요청했다.

또한 현행 ‘상한가격을 설정하고 범위내에서 산지 형성가격을 적용’ 한다는 것과 관련 농림부에서 조사 발표하는 최저 생산비를 보장함으로써 양계농가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본회는 ‘산지 형성가격을 적용하되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조사한 생산비를 하한 가격으로 설정’ 해 줄 것을 함께 요청했다.

육계자조금 임시 대의원 총회 개최

정족수 미달로 유회



지난 4월 26일 대전시 유성 소재 흥인호텔에서 육계자조금관리위원회(감사포함) 위촉 건을 처리하기 위해 임시 대의원 총회를 개최코자 했으나, 의결 정족수 미달(대의원 135명 중 66명 참석으로 과반수 미달)로 유회됐다(자세한 내용은 ‘현장취재 I’ 72P 참조).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장려금 지급요령’ 개정 의견 제출

닭의 구분 ‘육계실용계, 재래닭, 삼계’ 로 구분토록 요청

최근 농림부에서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장려금 지급요령’의 개정 수요조사에 대해 본회는 지난 4월 20일 보상금 평가액 상한선에 대한 의견을 농림부에 제출했다.

현행 자료에는 ‘축종중 닭의 경우에는 병아리·종계·육용실용계(재래닭 포함)·산란실용계·종란·브랜드란으로 구분하여 지급’ 토록 되어 있으나 재래닭과 삼계는 육용 실용계와 별도로 유통되며 가격도 별도로 적용되고 있으므로 닭의 구분에서 ‘육계실용계(재래닭 포함)’를 ‘육계실용계, 재래닭, 삼계로 분리(삼계의 경우 (사)한국계육협회 조사가격 기준’ 해 줄 것

화이트 닭살데이 행사 참석

닭고기 소비촉진 캠페인 실시

본회를 비롯 가금관련 단체와 가금수급안정위원회는 지난 4월 9일 서울 동대문 두타빌딩 앞에서 ‘화이트



닭살데이' 선포식과 함께 다양한 닭고기 소비촉진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행사에는 본회 서성배 회장을 비롯 축산연구소 이상진 소장, 양계협회 최준구 회장, 오리협회 김만섭 회장, 농협중앙회 남성우 대표, 연예인농촌돕기운동본부 김해권 회장과 탤런트 이일화, 이병욱 씨 등 가금관련 단체장과 연예인 등이 참석해 행사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이색 닭고기 요리를 제공했다.

이밖에도 닭고기를 이용한 조형물 전시, 닭살커플 선발대회, 닭살커플 닭고기 빨리먹기 대회, 닭살사진 콘테스트, 닭살문자 보내기 등 다양한 이벤트들이 마련돼 시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었다(자세한 내용은 '현장취재II' 74P 참조). 

EU 육계 살모넬라균 감염수준 조사 결과 구주지역 육계농장 중 23.7%가 살모넬라 균에 감염

유럽식품안전청(EFSA)은 2005~2006년 구주지역의 육계 살모넬라균 감염수준을 조사한 결과 역내 육계농장 중 23.7%가 살모넬라균에 감염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유럽식품안전청은 지난 4월 3일 EU 회원국 전문가로 구성된 질병 Task Force는 이같은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육계 조사표본은 2005년 10월~2006년 9월까지 6,325농가 7,440개 농장에서 도축 3주전 육계 중에 수집된 것이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23.7%가 살모넬라균에 감염된 것으로 관찰됐으며, 이는 EU에서 4개 육계농장 중 하나 꼴로 살모넬라균에 감염된 것을 의미한다.

회원국별 질병감염 정도는 0%~68.2%까지 다양한 분포를 차지하고 있다.

전체 육계농장의 11%, 살모넬라균 감염농장의 40%는 살모넬라 인체감염 원인 중 가장 일반적인 원인균인 Salmonella Enteritidis와 Salmonella Typhimurium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회원국별로는 0%~39.3%

의 분포를 나타냈다.

이에 따라 EU 집행위원회는 EU 전체적으로 3년간에 걸쳐 두 가지 유형의 살모넬라균을 감축하는 목표를 설정할 계획이다.

닭고기는 유럽내 살모넬라균 감염과 연관되어 있으며, 유럽식품안전청이 2005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별로 0~18%의 신선 닭고기가 살모넬라균에 감염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살모넬라는 EU 식중독 사고중 두 번째로 빈번한 원인균으로 2005년에 176,395명(인구 10만명당 38명)이 살모넬라균에 감염됐으며, 주로 완전히 고기를 익히지 않거나 다른 식품에 교차오염됐을 때 위험에 노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럽식품안전청 Task Force는 회원국별로 다른 유형의 살모넬라균에 대한 질병통제조치를 취하고 소비자 교육 캠페인과 대량 식품유통업체에 대한 엄격한 위생 관련 법령을 집행할 것으로 권고했다.

- 자료 : 주벨기에왕국대사관검주주연합대표부